

“北 핵시설 복구 시작”

美 압박... 또 벼랑끝 협상 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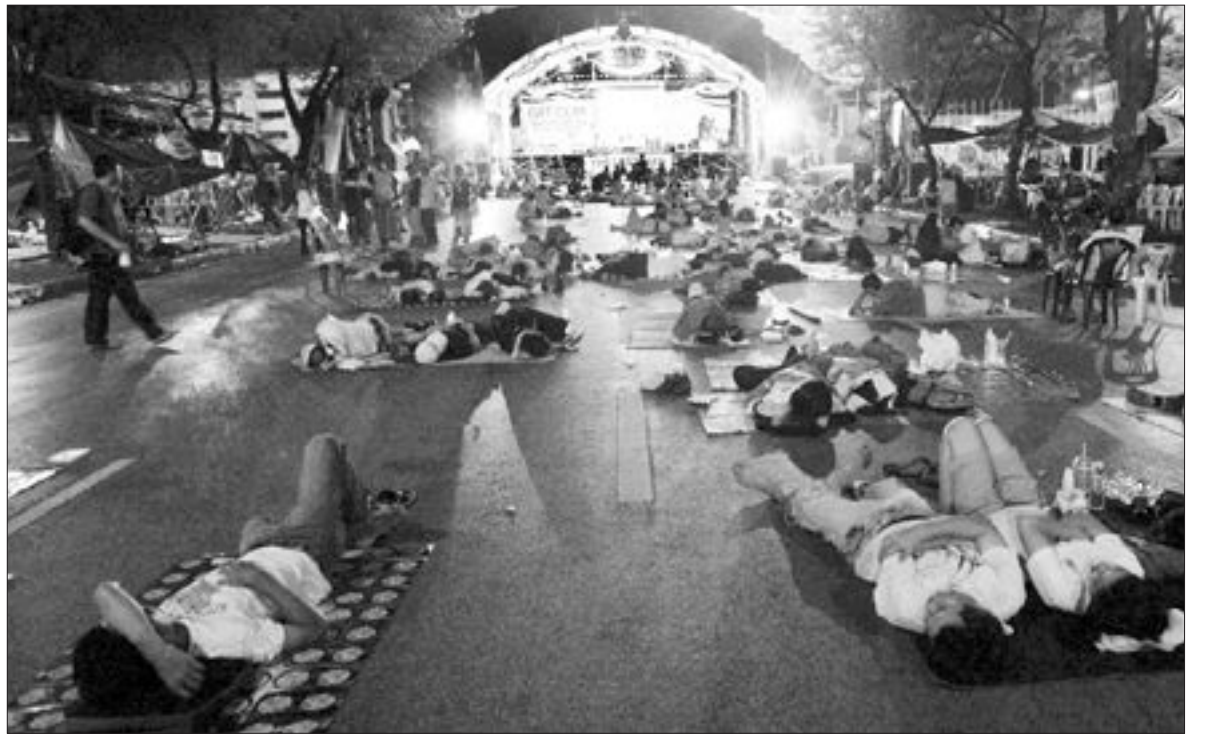
정부 “진위 확인중”...美차기 행정부 겨냥 착수 가능성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작업을 시작했다는 미국 폭스뉴스의 보도가 3일 나오면서 검증체계 구축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의 북핵 외교라인과 정보라인은 관련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핵시설 복구작업이 개시됐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3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영변 핵시설의 원상복구 작업을 개시하는 것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과정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변 현장에는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이 있어 복구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차 때문에 보고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시설 복구에 나섰는지 여부를 당장은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현재 새벽시간인 미국에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는데 영변에 있는 미국 기술자들도 시차 때문에 북쪽에 보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아직까지 관련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핵시설 복구작업이 이뤄지는 지는 알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아직까지는 진위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외교계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금 해제 조

치 유보에 대한 불만으로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에 돌입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부터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핵시설의 원상복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능화 중단 이후에도 미국이 검증체계 구축에 대한 강경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자 다음 카드로 핵시설 복구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끝 협상’ 전술일 뿐 6자회담을 파국으로 몰고간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는 대체적인 관측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불능화 중단에 이어 핵시설 복구에 착수했

다면 유감스러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더 이상 협상 의사가 없다면 핵시설을 복구하기 보다는 영변에 있는 미국 및 IAEA 기술자들을 추방하는 카드를 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협상 카드 이상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다른 소식통은 “만약 북한이 복구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중도에 다시 포기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임기 말년인 부시 행정부 대신 차기 행정부와 협상을 염두에 두고 그 사이의 공백기를 활용하고자 1년 인권의 긴 시간이 필요할 영변 핵시설 복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태국 총리에 대한 시위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반정부 시위자들이 3일 방콕 정부청사 앞에서 잠자고 있다. /연합뉴스

泰 ‘총리 사임-의회 해산’ 압력 가중

비상사태 선포후 反정부 시위대 勢 확산 시위대의 정부청사 점거농성과 비상사태 선포로 조성된 태국의 정국경색을 풀기 위해 사막 순다라예 총리가 사임하거나 의회를 해산해 조기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청사를 점거농성 중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는 한때 발생농성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2일 비상사태 선포 후 오히려 그 수가 불어나 5천명선에 달한 가운데 3일 9일째 농성에 돌입했다. PAD는 사막 총리가 먼저 퇴진해야 야권 협상을 위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솜키타 공파이론 PAD 공동대표는 사막 총리가 퇴진하지 않으면 비상사태 책임자인 아누풍 파오진다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와도 협상에 임하지 않기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대표 5명이 합의했다면서 “협상을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는 사막 총리의 사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탐파사태대학의 수라폰 니티크라이웃 총장도 정국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히들대학·나레수안대학의 교수와 학생단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등 직능단체들도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며 총리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막 총리는 “시위대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사임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공화 ‘페일린 구하기’ 오바마 지지율 50% 돌파

백악관·지도부 총출동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매일 발표하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의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갤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후보의 지지율은 50%, 현재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는 42%를 나타냈다. 오바마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폐막 후 지금까지 5% 포인트 상승했다. 전당대회 개막 전에 오바마와 매케인의 지지율은 각각 45%로 동률을 이뤘다. 오바마 후보의 지지율이 비록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르는데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시점에서 갤럽의 일일 여론조사에서 50%라는 상징적인 선을 돌파한 것은 전당대회의 효과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美 공화 ‘페일린 구하기’ 백악관·지도부 총출동

고교생 딸의 임신 사실이 공개돼 공지에 돌린 미국 공화당의 새라 페일린 부통령 후보를 구하기 위해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백악관의 대니얼 페리노 대변인은 2일 페일린 후보 딸의 임신 사실을 언론이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가 페일린 후보의 가족이 함께 헤쳐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마이크 허커비전 아칸소 주지사는 “페일린 후보는 진정한 가족과 함께 하는 인적인 인물”이라면서 페일린을 적극 옹호했다. 존 매케인 후보 자신도 “부통령 후보 검증과정이 완벽할 정도로 철저했으며 그 결과에 만족한다”며 페일린 주지사의 가족문제가 부통령 지명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원지구 건물임대' (Suwon-gu Building Rental)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Korea Real Estate Public Broker) list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한중일 정상회담 연기

日 “후쿠다 총리 사의로 9월 개최 어려워”

일본 정부는 3일 오후 21일 고베(神戸)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유엔 구호기 콩고서 추락 탑승 17명 전원 사망한 듯

유엔 구호기가 콩고민주공화국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하고 있던 1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2일 밝혔다. OCHA는 승객 15명과 승무원 2명을 태우고 콩고민주공화국 부카부로 향하던 구호기가 1일 밤 악천후로 실종됐으며, 2일 부카부 공항에서 북서

유엔 구호기 콩고서 추락 탑승 17명 전원 사망한 듯

쪽 15km 지점의 가파른 산등성이에서 비행기 잔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기 운영기관인 비영리기구 에어 세르브 인터네셔널은 홈페이지를 통해 헬리콥터를 통한 공중수색 결과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에어 세르브측은 언론발표문을 통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수색 및 구조작업이 시작됐으며,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들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자체 입수한 승객명단을 확인한 결과,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 중 4명은 프랑스, 인도, 캐나다, 콩고공화국 국적자이며 나머지는 콩고민주공화국 국민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Oxion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categorized by location (Gyeongju, Suwon, etc.) and type (apartments, houses, etc.).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전북 남원시' (Jeonbuk Namwon-si) listing property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